남원농기센터,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추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수업으로 진행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남원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대표 먹거리인 돼지고기(흑돈), 한우, 상추, 표고버섯, 토마토, 콩, 마늘 등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및 실습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나만의 밥상을 차릴 계획이며, 봄나물인 냉이, 달래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로 피로 해소와 춘곤증을 퇴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 조리법도 교육한다.

센터 담당자는 "이번 교육이 지역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무주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주취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 있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동안 정작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백구면, 주민 소통 현장행정 추진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7일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백구면은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최선규 면장과 각 업무 담당이 관내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 주민과 만나 주요 시책 전달과 함께 문화, 복지, 농업, 건설, 민원 등 행정 전 분야에 대해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첫날 동월연대마을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12개 마을을 순회했으며 이달 내 총 42개 마을을 전부 방문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문경연 교수,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신임 학장 취임

"글로벌융합대학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신임 학장에 문경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가 취임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이에 따르면 문 신임 학장은 2020년부터 2년간 글로벌융합대학 부학장을 역임하고, 2023년부터 국제개발협력원 원장과 산하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현재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회의 민간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문위원, 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KAUNS) 총무위원장, 호남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위원장,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과 북한연구학회 북한개발협력분과 위원장, 국제정치학회 국제개발협력분과 위원장,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및 북한개발협력 분야 정부 및 학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문 신임 학장은 "글로벌융합대학의 특수성과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전북대학교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글로벌융합대학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융합대학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최초로 전북대에 설립된 국제대학의 새 모델이다. 2018년 국제인문사회학부와 국제이공학부 중심의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로 출범한 후 지난해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적 해결을 수행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공인재학부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융합학부(IAB융합전공, 에너지신산업전공, 예술융합창작전공,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전공, 반도체전공, 반도체소재부품장비전공)를 편입해 글로벌융합대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성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진행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황정자)가 지난 6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매년 3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홍보하고자 기획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었고, 유엔에서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황정자 회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하고 여성 정치 활동이 미흡한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주체성을 갖고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뜻깊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 홍보

남원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 이용에 관해 홍보하고 있다.

119안심콜은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산부, 고위험군 병력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사전 등록한 정보를 통해 119 신고 접수 시 상황실에서 맞춤형 응급처치 안내 및 출동구급대의 환자정보를 바로 파악해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 방법은 119안심콜 서비스 홈페이지(u119.nfa.go.kr)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전화번호와 주소)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되며, 온라인이 어려우면 가까운 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해서 대리로 등록할 수 있다.

이칠성 대응예방과장은 "119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송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다"며,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무주경찰서, 신학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에서는 7일 새학시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무주중학교에서 실시했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남기재서장, 황인홍 군수, 김승기 교육장과 무주군청, 무주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회, 경우회, 무주군 청소년상담센터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피켓과 현수막, 물티슈와 핸드크림등 홍보물품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 횡단보보 일시정지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준수 홍보를 전개했다. 앞으로도 스쿨존 내 교통 및 지역경찰 경력을 집중배치하여 선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남기재 무주경찰서장은 "교통약자인 초등학생에 대하여 녹색어머니회, 경우회 등 유관단체와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해하는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계도 및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지진발생 대비 대피훈련 실시

순창군은 지난 6일 행복누리센터에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군청 공무원 및 14개 사회단체를 포함한 총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실·과·원·소 및 읍·면은 영상교육을 통해 내용을 학습했다.

훈련은 대규모 지진 발생을 가정해 실내대피와 야외대피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으며, 대피 과정에서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서 몸을 보호하고,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으로 대피하는 등의 훈련이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경찰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서장 송승현)는 7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 활동 전개를 위한 20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하 심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위회는 송승현 서장, 내부위원 2명, 진안군 소재 법률사무소장 등 외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했다.

심위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피해회복·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원처분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 대상은 절도 4건으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감경(즉결심판) 처분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